

정부, 수·위탁 실태조사 제도 개선

중기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수도권 표본 비율 32%→50%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관리 강화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표본중 비율을 기존 32%에서 50%로 높이는 등 집중 조사한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환경 대응, 조사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5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도 8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준수 여부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 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엔 수도권 32%, 비수도권 68%였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업종을 선정해 관리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를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1단계)→수탁기업 설문조사(2단계)→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3단계) 차례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은정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견업계 회원 지원 강화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뉴욕상공회의소(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마크 제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K-기업 뉴욕 진출 길 연다

뉴욕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뉴욕상공회의소와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뉴욕상공회의소(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마크 제피(Mark Jeffe)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배조웅 수석부회장, 강동한 부회장 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황

병구 회장, 김미경 이사장, 존 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뉴욕 광역권 진출을 위한 바이어·투자자 발굴 ▲양국 기업인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촉진 ▲미국 시장 동향 및 정책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K-푸드, K-뷰티, K-굿즈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국 최대 시장인 뉴욕에서 중소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안정적 효율·성능…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



자동차 시승기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합산 235마력… 정숙성·연비 등 강점
전 트림에 주요 안전기능 기본 탑재

현대자동차 준중형 SUV 4세대 투싼은 지난 2020년 9월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거치며 상품성을 높였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역대 투싼 가운데 가장 완성형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하반기 5세대 투싼(NX5)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4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의 완성도를 확인했다.

시승한 투싼 하이브리드는 효율과 주행 성능 모두에서 안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1.6리터 싱글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조합은 엔진 단독 180마력, 시스템 합산 235마력을 발휘하고 35.7kg·m의 토크는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여유로운 힘을 제공한다. 도심에서는 엔진 개입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숙해 전 기차 같은 감각을 주고, 고속 영역에서는 자연스러운 엔진 응답과 안정된 차체가 편안한 주행을 돕는다.

3세대에서 지적되던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크게 개선됐다. 바닥 카펫 보강, 흡차음재 확대, B필라 및 운전석 하단 보강, 기존 앞유리에서 1열 도어까지 확장된 이중접합 차음유리 등이 주행 정숙성을 높였다.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적고,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침착한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연비 경쟁력도 강점이다. 복합 기준



현대차 투싼 외관 모습.



현대차 투싼 실내.

/이승용 기자

14.3~16.2km/ℓ, 도심 14.4~17km/ℓ, 고속도로 14.1~15.2km/ℓ로, 하이브리드 특성상 도심에서 효율이 더 좋다. 출퇴근 중심 사용자에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외관은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주간주행등 역할을 겸하는 ‘히든 램프’가 강렬한 전면 이미지를 만든다. 측면의 깊은 캐릭터 라인과 후면의 일자형·세로형 램프 조합은 단단한 SUV의 존재감을 강조한다.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모니터가 이어지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는다.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디자인은 시

인성을 높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블루링크 스트리밍 등 최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지도·드라이브 모드·오토홀드 등 자주 쓰는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 조작 편의성도 확보했다. 컬럼 타입 변속기와 플로팅 센터 콘솔은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고 시트는 탄탄한 가죽 소재로 내구성을 확보했다.

2열 공간은 휠베이스 확장 덕분에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한 만큼 여유롭고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장거리 편안함을 뒷받침한다. 2열을 접으면 성인이 넓기에도 충분한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져 간단한 차박도 가능하다.

편의 기능으로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HUD 연동 기능 등이 제공되고 안전 사양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주요 시스템이 전 트림 기본이다.

새로운 세대 출시가 가까워졌음에도 4세대 투싼 하이브리드는 효율, 공간, 정숙성, 주행 안정감을 모두 갖춘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견련, 회원사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나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사들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 등 법률 지원에 나선다.

중견련은 지난 5일 서울 마포 중견련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네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조사·규제 의무 위반 비용 등 관련 특별약관이 적용된 중견련 회원사 전용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체계적인 소송·분쟁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경영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인사가 이해되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과 소비·투자·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펌테크 주제 ‘네트워킹 데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펌테크(FemTech)를 주제로 회원사들과 함께 새 비즈니스 기회 창출 모색에 나섰다.

여경협은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서 펌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수젠텍 손미진 대표와 이너시아 김효이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현장

의 생생한 경험과 산업 전망을 공유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교류하고, 펌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취지에 맞춰 펌테크를 중점 육성 분야로 삼고, 여성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